
트럼프는 어떻게 승리했는가

- 선거전략과 캠페인 방식을 중심으로 -

2016. 11. 29

요 약

1. 클린턴 승리 예측의 이유 / 1
2. 클린턴은 왜 패배했는가 / 3
3. 트럼프는 어떻게 승리했는가 / 7
4. 시사점과 전망 / 11

보고서 내용은 새누리당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요 약 》

- 이번 미국 대선은 오바마와의 선거연합, 선거자금과 캠페인 네트워크에서의 압도적 우위, 후보 자질에 대한 높은 평가 등을 바탕으로 클린턴의 손쉬운 승리가 점쳐졌으나 결국 트럼프의 승리로 귀결
- 클린턴의 패배는 선거 캠페인의 관점에서 다음의 요인들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
 - 즉 ▲제도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새로운 변화를 찾는 미국 유권자 ▲기성 대중 매체에 대한 불신 ▲여론조사, 선거컨설턴트 중심 캠페인의 퇴조 등이 지적됨
- 반면 트럼프의 승리는 다음의 요인들에 의해 뒷받침됨
 - 제도 정치권에 대한 폭넓은 불신 속에서 스스로를 차별화하는데 성공함
 - 제도 정치권의 무책임과 무능을 무역, 테러리즘, 이민이라는 세 가지 간명한 정책 메시지를 통해 부각시키고 이를 유권자들이 처한 어려움과 효과적으로 연계시킴
 - 대중매체를 활용한 기획된 캠페인 보다는 대규모의 군중집회, 트위터를 통한 멘션 등 유권자들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즉흥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캠페인방식에 집중, 유권자들과 함께 한다는 인식을 심는데 성공
 - 적극적인 네거티브 캠페인을 통해 상대 후보 지지를 약화시킴
- 관건은 이번 선거의 변화가 항구적인 것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것인가 하는 점
 -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 문제해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 민주당이 새로운 변화를 통해 노동계층의 지지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 변화한 캠페인 환경 속에서 대중매체는 유권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1. 클린턴 승리 예측의 이유

□ 오바마 선거연합의 존재

○ 오바마는 백인 유권자층에서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흑인과 라티노 등 유색인종의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2008년 그리고 2012년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었음

- 라티노의 유권자 비율이 증가한 반면 백인의 비율이 하락하는 인구학적 변화는 유색인종 유권자층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적어도 전국단위의 선거에서 유리한 배경을 제공

○ 더욱이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미국 경제의 회복과 이에 따라 50%를 상회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업무수행지지율은 민주당에게 유리한 선거 환경을 만들어냄

- 경제가 항상 중요한 이슈였던 미국의 대선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함

□ 선거자금과 캠페인 네트워크의 우위

○ 클린턴은 오랜 정치적 경력으로 스스로 갖고 있는 캠페인 네트워크에 더해 오바마 대통령의 캠페인 네트워크를 그대로 이어받음

- 선거자금의 측면에서도 클린턴은 트럼프를 압도

- 이러한 캠페인 네트워크의 우위는 가가호호 방문과 전화 등을 통한 유권자 동원전략(Get Out To Vote)과 폭발적인 선거자금을 필요로 하는 대중매체를 이용한 캠페인방식(Air Wars) 모두에서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 후보보다 유리한 자원을 갖고 있음을 의미

□ 후보자질에 대한 평가

- 2016 미국 대선은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대중적인 호감도가 낮은 후보들 간의 대결로 인식됨
 - 캠페인 과정에서 잦은 막말과 자질시비에 처한 트럼프에 비해 클린턴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평가를 받음
 - 특히 트럼프의 인종주의적 발언과 여성을 폄하하고,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적인 언급 등은 선거캠페인 과정에서 금기시되어온 것들로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을 받았음
- 공약의 측면에서도 클린턴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었던데 반해, 트럼프의 경우 메시지는 분명하나 구체적인 실현방안에서 많은 의문점이 제시된 바 있었음
- 세 차례의 후보토론을 통해서도 클린턴 후보가 자질과 경험 등에서 트럼프를 압도하고 있음이 드러남

2. 클린턴은 왜 패배했는가

□ 역사적인 패턴과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

○ 주기적으로 변화와 새로움을 찾는 미국 유권자들의 특성

- 장기적인 역사 추세를 보면 미국에서 한 정당이 행정부 권력을 갖고 있었던 평균 연수는 8.6년
- 2차 대전 이후 미국 대선에서 한 정당이 세 번의 대선을 연속으로 이긴 경우는 레이건을 계승한 부시(G. H. W. Bush)가 당선된 1988년 선거가 유일함
- 또한 후보경선과정에서 나타난 샌더스와 트럼프 등 아웃사이드의 열풍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번 대선의 경우 기존 정치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이 대단히 높게 형성되어 있었음

New(비정치권 인사) vs Old(기존 정치인)의 대결, '변화'의 승리

○ 가장 중요한 불신의 이유는 기존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

-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기존 정치권으로부터 스스로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느끼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은 오랜 정치적 경력으로 기존 정치인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클린턴에게 약점으로 작용

□ 대중매체에 대한 불신과 선거컨설턴트 중심 캠페인의 퇴조

- 클린턴 패배의 일차적인 요인은 미국의 경제회복 실적에도 불구하고 중산층 붕괴, 양극화 심화 등이 가져온 심리적 박탈감이 인종 간 정치적 차이를 넘어설 정도로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음
 - 그러나 이 글의 초점에 맞추어 클린턴 패배가 야기한 중요한 질문은 선거자금과 캠페인 네트워크 등에서 압도적인 클린턴이 “왜 실패하였는가?”가 될 수밖에 없음
- 캠페인의 관점에서 클린턴 패배의 중요한 요인은 대중매체에 대한 불신 증폭과 20세기 중반 이후 그 역할이 두드러졌던 선거컨설턴트와 여론조사의 영향력이 퇴조하였다는 점에 있음
- 20세기 중반 이후 대중매체의 본격적인 등장과 여론조사 기법의 발달로 선거캠페인 과정이 복잡해짐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선거컨설턴트가 등장하고 실제 선거과정에서 이들이 갖는 영향력과 중요성이 높아짐
 - 이들의 역할은 총괄적인 캠페인 전략 생성과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 등을 통해 후보자를 대중에게 긍정적으로 인식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당선되도록 지원하는 데에 집중됨

- 선거에서 선거컨설팅트와 대중매체의 영향력 증대는 대체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문제점을 야기함
 - 우선 포괄적인 선거캠페인의 필요성과 대중매체 활용의 중요성으로 인해 선거비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선거에 임하는 후보가 점점 더 선거자금의 모금에 신경을 기울여야 상황을 초래
 - 그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후보들의 선거캠페인이 유권자 자체보다는 대중매체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보여주는 이미지에, 그리고 대중과의 직접적인 접촉 보다는 대중매체를 통한 간접적인 접촉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다는 점

잘 짜인 선거전략이 오히려 후보와 유권자 간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

- 이러한 문제들은 선거에 임하는 후보가 유권자층과의 접촉보다는 선거 자금 확보, 그리고 대중매체 활용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결국 유권자와의 연계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짐
- 이러한 인식은 제도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맞물려 더욱 증폭됨
 - 즉, 유권자들이 대중매체로 전달되는 정치정보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그들이 유권자의 입장이 아닌 “자신만의 게임”에 집중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유권자들로부터 위임된 권력을 “부당”하게 자신들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는 인식

- 이번 선거에서 클린턴은 자질과 경험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 등에서 트럼프를 압도하였고, 구축한 선거캠페인 네트워크 속에서 잘 짜인 프로그램에 따라 큰 흠결 없는 캠페인을 보여주었음
- 문제는 대중매체와 선거컨설턴트 중심의 캠페인이 더 이상 유권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때때로 그것이 작위적인 이미지까지 심어주었다는 점에 있음
 - 기존 방식의 선거캠페인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간접적인 증거는 62%에 이르는 유권자들이 캠페인이 본격화되는 9월 이전에 이미 지지 후보를 결정하였다는 사실(Exit Poll)
 - 완벽한 캠페인은 클린턴의 흠결들(트럼프와 비교하면 사소할 수 있는 것들)을 유권자들에게 더욱 크게 각인시켜 지지자들을 적극적으로 투표장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는 배경이 됨
- 반면, 트럼프의 파격과 기행은 그 내용에 관계없이 오히려 제도 정치인과 뚜렷이 구분되는 차별성으로 인식되게 하였음

3. 트럼프는 어떻게 승리했는가

□ 선거구도에 대한 인식과 이에 따른 전략의 차별점

- 이번 선거에서 보여진 트럼프의 캠페인 과정은 선거 캠페인의 통념을 여실히 무너뜨리는 것이었음
 - 특히, 인종, 이민 이슈들을 직접적으로 제기하고 논쟁적인 이슈들의 지속적인 부각시켰던 점은 기존의 선거캠페인에서는 금기시되었던 사안들
- 사후적인 해석이지만 트럼프가 기존의 통념을 깨고 공화당 주류 그리고 캠페인 전문가들의 도움 없이 스스로 캠페인의 전면에서 나섰다는 사실은 그에게 기존 정치인과는 전혀 다른 파격적인 이미지를 심어줌
 -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는 유권자들의 제도정치권에 대한 불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취함
 - 예컨대 선거캠페인 기간 내내 제도정치권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거명하고 그것이 미국 사회를 전체적으로 망가뜨려 놓은 직접적인 원인임을 부각시킴
 -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정치권이 아닌 '외부'의 인물이 필요하고 자신이 그러한 인물임을 내세움

- 요약적으로 말해 트럼프는 미국 사회 특히 백인 유권자들에게 널리 퍼져있는 부정적인 인식을 간파하고, 문제해결에 있어서 제도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 부각, 그리고 자신의 차별성을 캠페인의 핵심전략으로 삼음

□ 캠페인 방식에서의 차별점

- 트럼프의 메시지 전달방식은 복잡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보다는 미국 사회의 문제점을 무역(Trade), 테러리즘(Terrorism), 이민(Immigration)이라는 세 가지 간명한 원인들을 중심으로 집중 제기하는 데에 치중하였음

- 이는 제도정치권의 레토릭이 수사적이지만 대중이 체감하는 문제들과는 거리가 있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임

- 또한 대중매체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트럼프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통해 신문, 방송 등 전통적인 대중매체와 거리를 두고 대규모 군중집회와 트위터(Twitter) 선거운동에 집중함

- 대중매체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스스로 '차별'적인 이미지 창출에 도움이 되는 한편, 군중집회와 트위터를 통해 대중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던지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대중들로 하여금 스스로 '관심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함

○ 특히 트럼프가 수시로 행한 간결한 트위터 멘션을 통한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은 1930년대 루스벨트(Franklin Roosevelt)의 ‘노변담화 (fireside chats)’를 연상시킴

- 결과적으로 이같은 활동은 자신에게 공격적인 대중매체를 우회하는 방편이 되는 동시에 다양한 뉴스를 만들어냄으로써 스스로 대중매체의 뉴스가 되는 이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음.

○ 실제로 트럼프는 선거 직후 대중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효과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 있음 (“social media gives him a method of fighting back against negative news coverage” CBS, 60 minutes과의 인터뷰, 2016년 11월 13일)

□ 네거티브 캠페인을 통한 상대 진영 와해전술

○ 이번 선거의 또 다른 구도는 난민과 테러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사회적 우경화 분위기와 함께 세계화와 자본 그리고 금융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인한 전세계적인 소득불평등의 심화에 대한 불만이 혼재되어 있던 상황

- 또한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흑인 대통령 8년에 대한 불만과 저항감, 민주당 집권 8년간의 개혁에 대한 피로감이 주류 백인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었음

○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변화에의 욕구는 특히 백인 저소득 노동자 계층에 더욱 강렬하게 퍼져 있었음

- 트럼프는 전술적인 측면에서 클린턴의 약한 고리를 집중 공략하고 이를 통해 클린턴 지지자들이 투표참여의향을 약화시키는데 집중한 것으로 보임

-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는 전체적으로 2012년 보다 약 6백만 명 가량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러한 저조한 투표율은 상당수 민주당 지지자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특히 이번 선거결과에 핵심적인 지역이었던 미시간, 위스콘신, 오하이오 등 중서부의 소위 쇠락한 제조업지역(rust belt states)에서 트럼프의 승리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은 까닭임

○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번 선거의 결과는 “트럼프 승리”보다는 “클린턴 패배”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임

4. 시사점과 전망

- 선거가 끝난 시점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이러한 변화가 항구적인 것이 될지 아니면 2016년에 국한된 일시적인 현상일지에 관한 전망
- 먼저 이번 선거에서는 여론조사와 선거컨설턴트의 영향력 퇴조로 대표되는 캠페인 방식의 변화가 목격됨
 - 본질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변화는 소셜미디어의 확산으로 정보의 생산과 전달에 있어서 대중매체의 독점적 지위와 영향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음에 기인함
 - 유권자들은 대중매체의 분석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을뿐더러 정치적 양극화와 다양한 매체의 난립으로 대중매체가 생산하는 정보에 피로감을 느끼고 때로는 불신하는 경향을 보임
- 문제는 대중매체와 선거컨설턴트가 이에 수동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
 - 만일 이들이 능동적으로 변화에 적응하고 유권자들의 관심현안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대중의 신뢰를 찾을 수 있을 것임
- 트럼프의 승리는 제도정치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아웃사이더로서 자신의 입지를 각인시킴으로써 스스로를 차별화하는데 성공하였다는 점에 기인함

- 그러나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앞으로 스스로가 펼치는 정책들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음
- 따라서 선거캠페인 과정에서의 '차별화'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기존 정치인들과 다르지 않다는 평가로 이어져 스스로 뒷에 걸리는 함정이 될 수 있음

○ 문제는 트럼프가 내세운 무역, 테러리즘, 이민 등 간명한 정책메시지들이 현실에 있어서 해결하기 대단히 어려운 난제라는 점

- 특히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가 승리하는데 일등공신이 된 저소득 백인 노동계층은 지금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음
- 과연 트럼프가 어떠한 정책을 통해서 선거에서 받은 이들로부터의 지지에 보답하는지는 지켜볼만한 관전 포인트임

○ 더불어 민주당이 이들의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변화를 꾀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뉴딜 이후 오래도록 이어져 온 노동계층과의 연계는 민주당으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사안임
- 비록 클린턴이 이번 선거에서 노동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했지만 실제 환경문제와 자유무역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함께 내세움으로써 그것이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이 변화를 통해 이들의 지지를 회복할 것인지는 결국 “정당 유권자 재편성 (partisan realignment)”이라는 측면에서 지금의 변화가 항구적인 될 것인지를 결정할 핵심적 요인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안임

본 보고서는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 학부 교수에게 美 대선 결과가 나온 직후 긴급하게 의뢰해 작성 된 보고서임